

# “인쇄업 이미지 제고 절실”



아현산업정보학교에서 전자출판 코스를 가르치고 있는 오명화 교사는 부경대학교 인쇄공학과(현 인쇄정보공학전공)를 졸업한 인쇄 전문가다. 그래서인지 “제가 가르치고 있는 디자인 분야도 인쇄의 일부입니다. 미술적 감각이나 소질이 뛰어난 사람이 디자인에 쉽게 접근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인쇄의 결과는 인쇄시스템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니터 속에서 예쁘게 색 구성을 했는데도 인쇄물이 그에 못 미치게 나오는 이유도 디자이너가 인쇄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라며 디자인 분야에서도 인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특히 강조한다.

아현 학교 전자출판 코스에서는 인쇄·출판 분야로 취업하거나 혹은 관련학과로 진학하기를 원하는 서울시내 각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탁받아 교육시키고 있다. 이 코스는 오 교사가 부임할 당시인 7년 전에는 특수인쇄 분야를 많이 가르쳤는데, 인쇄분야에서도 컴퓨터의 역할이 강조돼 지금은 Photo Shop, Illustration, Quark 등을 주로 교육한다.

30명이 정원인 이 코스 수료생 중에서 여학생들은 주로 출력분야로, 남성들은 인쇄현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물론 상급학교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다.

학생들에게 오 교사는 “많은 것을 준비한 사람이 훨씬 다양한 가능성의 세계를 열 수 있다는 의미에서 비행기 샀어 있으면, 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 기차와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버스요금만 있다면 무조건 버스에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종종 해준다.

“그러나 학생들이 이 말을 들을 때는 그 뜻을 잘 인식하지 못하죠. 그래도 2~3년 뒤에 나타나 그 때의 말 한마디가 도움이 됐다거나 뒤늦게 깨닫고 다시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며 고마움을 전할 때는 교사로서의 보람을 느낀다.

또 오 교사는 “인쇄는 저에게 매우 매력적인 분야였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독일만 해도 인쇄업종은 사회 엘리트 계층으로 여겨져 고급인력이 진출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리 좋게 인식돼 있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인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해 하루빨리 인쇄업종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길 바랍니다”라며 인쇄업계 사람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조갑준기자)

아현산업정보학교 전자출판 오명화 교사